

# 03 다양하게 발상하기

## 교수·학습 계획 새로운 형태 발견하기

차시	1차시	교과서 쪽수	14~15쪽
수업 목표	1. 우연을 활용한 아이디어 발상 방법을 이해한다. 2.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발상하고 표현한다.		
준비물	교과서, 활동지, 필기구, 채색 도구		

### 교수·학습 과정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이디어 발상의 영감을 얻은 교과서 작품과 관련 이미지와 영상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동기 유발하기</li> <li>작품에서 느껴지는 인상이 어떠한가?</li> <li>작가는 무엇에서 영감을 얻었을까?</li> </ul>
전개	<p>① 일상생활에서 소재 찾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쉬는 시간, 등교와 하교 시간, 휴식 시간 등을 이용하여 주변 사물을 관찰한다.</li> <li>평소에 지나쳤던 일상 사물들을 자세히 관찰해 본다.</li> </ul> <p>② 소재에 아이디어를 더하거나 변형·왜곡하여 새로운 발상 표현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음에 드는 소재를 고른다. 아이디어 소재는 특별한 물건이나 풍경 또는 특정한 시점에서 바라본 장면일 수도 있다.</li> <li>대상의 사진을 찍어 출력한 후 아이디어를 사진 위에 표현한다.</li> </ul>
정리	완성된 작품을 게시판에 올리거나 모바일 플랫폼에 올리고 친구들과 작품을 감상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진을 출력하지 않고 모바일 혹은 컴퓨터 기기를 이용하여 아이디어 발상을 지도한다.</li> <li>활동 과정에서 제한을 최소화하여 자유로운 발상과 표현을 시도해 보도록 지도한다.</li> </ul>

평가 요소	평가 내용	평가 수준
평가 방법	선택한 소재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발상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자신의 작업 과정과 작업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평가 방법	관찰법, 체크리스트	

### 교과서 작품 해설

#### 1 트리뷰트, 코르네

<트리뷰트>에서 코르네는 구형 유선 전화기를 이용하여 양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구형 전화기의 수화기와 본체를 잇는 구불구불한 선을 양털에, 수화기를 다리에, 전화기 전체를 얼굴로 대체한 표현이 독창적이다. 양은 종교, 언어, 문화에 따라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코르네는 이 작품에서 '재충전'과 '소식 전달'의 의미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1996년에 최초의 클론(유전자 복제) 동물로 태어난 '돌리'에 착안하여 제작된 전화기 양 여러 마리는 원작과 복제본 사이의

# 03 다양하게 발상하기

1 미술에서 발상의 가치를 이해하고 열린 태도로 아이디어를 탐색할 수 있다.  
2 아이디어와 주제를 발전시켜 표현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적절히 계획할 수 있다.



1

▲ 코르네(Cornec, Jean-Luc/프랑스/1955-) 트리뷰트(원형 재료/기판 크기/1996년)

경계, 단 하나의 작품과 시리즈 사이의 경계를 오고간다. 더불어 미래에서 물질이 갖는 생태학적 비전을 나타내기 위하여 생명체인 동물을 전자 기기를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 구형 유선 전화기. 가운데의 둥근 다이얼을 돌려 번호를 입력하고 전화를 건다.

#### 2 저지, 골웨이의 구름

매일의 구름(A Daily Cloud)이라는 SNS 계정에 매일 관찰한 구름에 워트를 결합된 이미지를 추가하여 업로드한다. 2020년 코로나 기간 중 원숭이와 곰처럼 생긴 구름을 발견한 저지는 구름 사진을 찍고 사진에 간결한 선을 그려 SNS에 업데이트하기 시작하였다. 저지의 구름 드로잉은 곧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았고, 그는 새로운 구름 드로잉을 매일 올리기로 결심하였다. 그의 드로잉은 간결하면서도 워트 있는 표현으로 보는 이의 웃음을 자아내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 그리다 보면 열리는 생각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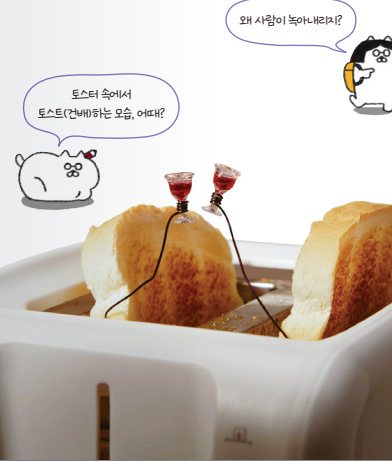
철저한 계획에 따라 미술 작품을 제작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작품이 가볍고 우발적인 드로잉에서 출발하여 완성된 작품으로 발전해 나간다. 점이나 선 혹은 주변의 사물과 풍경으로부터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보자.



▲ 허지은(학생 작품) 무제(종이에 수채/2014x29.4cm) 우발적인 자국이나 스펙터에서 시작하여 자유로운 형태로 발전시켰다.

#### 고정된 생각의 틀을 깨고

미술가는 대상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미술 작품은 미술가의 이러한 남다른 아이디어를 반영한다. 고정 관념을 뒤집는 유언한 사고를 발휘하여 새롭게 기발하게 표현해 보자.



▲ 토스터 속에서 토스트(간짜)하는 모습, 어찌? 왜 사람이 보이냐?!

# 2



▲ 저지(Judge, Chris/잉글랜드/1971-) 골웨이의 구름(사진에 펜 드로잉/15.7x12.6cm/2020년) 구름 사진에 몇 개의 선을 그려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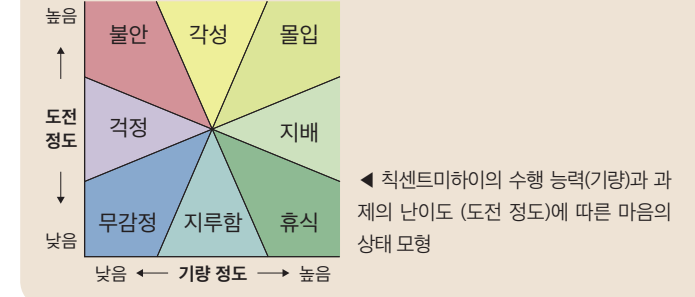
▲ 피셔(Fischer, Urs/미국/1973-) 무제(종합 재료/기판 크기/2011년) 언뜻보는 속임에 이르는 영감과 몰입을 끌어내며 사색하는 영혼을 안장 지어 표현하였다. 미친 사람 다른 사물에서 영감을 찾는 사고 과정을 유추하고 한다.

▲ 보더(Border, Terry/스위스-미국/1965-) 사람의 견해(종합 재료/기판 크기/2010년) 견해를 리미하는 영아 단어 '토스트(tost)'와 발음과 철자가 같은 '토스트' 이미지를 결합하여 표현하였다. 재치 있는 발상은 기존의 아이디어를 유다르게 재해석함으로써 보는 이에게 재미를 준다.

15

### • 지식 창고 | 플로우(flow)

시간이 흐르지도 모르고 무엇인가에 깊이 집중한 적이 있는가? 미술 수업 시간에 작업에 집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시간이 지났음을 깨닫고 깜짝 놀라는 학생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처럼 어떤 활동에 깊게 빠져 주변의 상황, 심지어 시간마저 잊어버리고 집중하는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플로우(flow)라고 한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Mihaly Csikszentmihalyi)가 명명한 이 용어는 우리말로 '몰입'이라고도 부르는 마음의 상태이다. 몰입 중에는 현재 하는 일에 강도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고, 행동과 인식이 동시에 일어나며 자기자아 인식과 시간 개념이 사라진다. 플로우 상태를 '존(Zone)'이라고도 하는데, 이 집중 구간엔 한 번 진입하면 대상에 모든 집중을 쏟아 온전한 몰입이 가능해지며 활동 과정 자체에서 순수한 기쁨과 활력을 얻는다. 플로우, 즉 몰입의 상태는 수행 능력과 과제 난이도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었을 때 나타난다.



### • 작가를 소개합니다 | 일상 사물의 재해석, 보더

여러 종류의 음식과 철사, 이 두 가지만으로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작가가 있다. 상업 사진가로 일했던 보더는 예술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후 2006년부터 '구부러진 사물들(Bent Objects)'이라는 주제로 일상 사물과 식료품을 의인화한 미술 작업을 시작하였다. 보더의 작품은 주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친근한 사물을 소재로 한 유머러스한 표현이 특징이다. 소재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야기를 표현하고 이를 촬영한 보더의 작품은 특유의 워트로 보는 이를 웃음짓게 하는 동시에 우리의 삶을 투영한 현실적인 의인화로 때로는 진한 감동을 선사한다.



▲ 보더(Border, Terry/스위스-미국/1965-) 잔 다르크 마시멜로(디지털 이미지/가변 크기/2010년)

#### 3 피셔, 무제

피셔는 다양한 재료와 대상의 왜곡, 변형, 병치 등을 실험하는 자신만의 예술 언어로 표현하는 작가이다. 서로 다른 사물들을 병치하며 독특한 미감을 이끌어낸다. <무제>는 실물 크기의 사람을 왁스로 표현한 조각 작품이다. 정수리에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심지가 달려 있으며 실제 전시에서는 초에 불을 붙인 채로 전시되었다. 녹아내리는 초는 시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상징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인간의 형체는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추상적인 개념인 시간의 흐름을 녹는 초의 모습에 빗대어 은유적으로 표현한 아이디어가 인상적이다.



▲ 정수리에 있는 심지에 불을 붙여 전시한 모습

## 교수 · 학습 계획 다양한 발상 방법 이해하기

차시	2차시	교과서 쪽수	16~19쪽
수업 목표	1. 미술 작품을 제작하는 데 다양한 발상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안다. 2. 한 소재나 주제에 여러 발상 전략을 활용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준비물	교과서, 활동지, 필기구, 자유 재료		

### 교수 · 학습 과정

도입	• 독특한 발상으로 작품을 제작한 작가의 작품, 인터뷰 혹은 작업 과정 영상 감상하기 -작가가 어떤 과정으로 발상을 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전개	① 다양한 발상 전략 이해하기 -교과서 예시 작품을 토대로 다양한 발상 방법과 예시를 이해한다. ② 한 가지 주제나 소재를 정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발상하여 보기 -마음에 드는 주제나 소재를 정하고, 다양한 발상 전략을 이용하여 어떻게 새로운 아이디어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 본다.
정리	소그룹으로 모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는다.
지도상의 유의점	다양한 발상 전략을 풍부하게 적용한 예시 작품과 설명을 제시하여 이해를 돕는다.

	평가 내용	평가 수준
평가 요소	선택한 소재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발상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자신의 작업 과정과 작업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평가 방법	관찰법, 체크리스트	

## 교과서 작품 해설

### 1 올덴버그, 부드러운 변기

전통적인 사물에 대한 고정 관념을 탈피하여 일상 사물의 소재를 바꾸어 표현한 작품이다. 올덴버그는 세 가지 다른 변기 조각을 만들었다. 하드보드지로 만든 작품, 캔버스 천으로 만든 작품, 그리고 비닐로 만든 작품이다. 다양한 소재를 변주하여 익숙한 사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 (좌) 변기-단단한 모형(기름, 하드보드지에 에나멜과 사인펜, 나무 /115×72×85cm/1966년) (우) 부드러운 변기-유령 버전(속을 채운 캔버스에 아크릴, 금속 /129.54×83.82×71.12cm/196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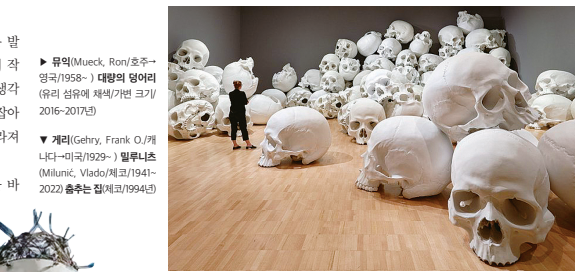
▲ 올덴버그(Olafur Eliasson, 덴마크-미국/1929~2022) 부드러운 변기(에나멜과 플라스틱/142.6×79.5×76.5cm/1966년)



▶ 피카소(Picasso, Pablo/에스파냐/1881~1973) 황소 머리(장동/33.5×43.5×19cm/1942년) 피카소는 자연계를 본떠 만든 뒤 변형과 연장을 합쳐 황소의 형태를 표현하였다.

### 비틀거나 키우거나 줄이거나

대상의 형태를 변형하는 것도 재미있는 발상 방법이다. 대상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작품을 제작하면 감상자가 색다른 느낌과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대상을 비틀거나 잡아당겨 모양을 왜곡하면 대상의 의미가 달라져 새로운 감각을 자극한다.  
작품을 감상하고 대상의 크기나 모양을 바꾸어 새로운 의미를 표현해 보자.



16

### 2 오펜하임, 다람쥐

일상 사물이나 상품을 미술 작품으로 편입시키는 오펜하임은 초현실주의 미술가들에게 많은 아이디어를 주었다. 초현실주의 조각가 오펜하임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사물들을 강제 결합함으로써 흥미로운 조각 작품을 제작했다. <다람쥐>는 호박색 맥주잔과 가짜 거품, 털을 이용하여 제작한 작품으로 흥미로운 사물들의 조합과 이미지가 눈길을 끈다. 생명이 없는 사물에 생명체를 연상시키는 꼬리를 조합하여 관람객은 현실에서는 만날 수 없는 대상을 만나는 신비로운 느낌을 받는다.



◀ 오펜하임, 모피로 된 아침 식사(모피를 씌운 찻잔과 받침, 스푼/높이 7.3cm/1936년)

### 표현 활동 더하기

- 오펜하임을 재료를 한 조각 작품 만들기



▲ 다나카 다쓰야(日本/1981~) 미니어처 컬렉션: 2023년 2월 17일 다다미 사진/2023년



◀ 오르테가(Ortega, Osmar/멕시코/1967~) 우주적인 것(자동차, 와이어나기만 크기/2002년) 작가는 자동차를 조각조각 분해한 형태를 전사하여 익숙한 대상을 낯설게 만들었다. 자동차를 구성하는 부품들은 작가를 작업 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상상하게 해 준다.

### 영동한 만남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대상끼리 만나면 새로운 느낌과 경험을 불러일으킨다. 익숙한 대상을 강제로 만나게 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자.



▲ 베베이(Berby, Thomas/미국/1957~) 오 시트(다다미 합성 사진/가면 크기/2019년) 흰색 천이 올라타려는 모습이 설산의 스카프처럼 보이도록 합성한 사진이다.



▲ 마그리트(Magritte, René/벨기에/1898~1967) 빛의 제국(캔버스에 유채/195.4×131.2cm/195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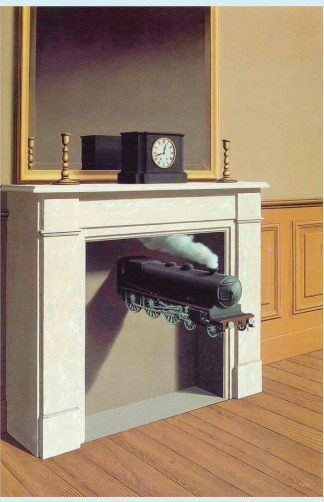
17

### •작가를 소개합니다 | 마그리트

벨기에 미술가 마그리트의 작품은 누구보다 '초현실주의'라는 말이 잘 어울린다. 마그리트는 일상적인 사물을 기이한 환경에 두어 연출하여 생소하거나 섬뜩한 느낌을 자아내는 회화를 제작하였다. 1927년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프랑스 파리로 옮겨간 마그리트는 당시 파리에서 활동하던 초현실주의자들을 만나 자신의 작품 세계를 꽃피웠다.



▲ (좌) 이미지의 배반(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캔버스에 유채/60.33×81.12cm/1929년) (우) 정지된 시간(캔버스에 유채/147×98.7cm/1938년)



### 3 파우츠, 지갑과 이빨

조각가이자 그래픽 디자이너인 파우츠는 서로 관련이 없는 일상의 사물들을 결합함으로써 유머러스하면서도 초현실주의적인 이미지를 구현하였다. <지갑과 이빨>은 한 대상과 전혀 다르지만 기능이 비슷한 대상을 연결시키며 유추하는 사고 방법을 적용하여 완전히 다른 두 대상을 합쳐 표현한 흥미로운 작품이다.

### 표현 활동 더하기

- 주변 일상 사물을 관찰하고 기능이 비슷한 대상을 찾아 강제 결합 작품 제작해 보기
- 유추를 활용한 발명품이나 미술 작품을 찾아 발표해 보기

### •작가를 소개합니다 | 다시 보는 세계, 다나카 다쓰야

다나카 다쓰야는 미니어처 사진가 겸 아트 디렉터이다. 2011년 4월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미니어처 작품을 업데이트하는 '미니어처 컬렉션' 작업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였다. 일상적인 물건이나 음식에 미니어처 인물들을 추가하며 재미있는 장면을 연출하는 다쓰야는 '관점의 전환'에 주목한다. 다쓰야의 작품은 '미타테'를 강조하는데, 이는 일본어의 '보다(見る)'와 '짓다(立てる)'를 합성한 표현으로 '다시 보다'라는 의미이다. 일상적으로 접하는 물건들을 위트와 유머를 발휘하여 낯설게 다시 바라보면서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부여한 다쓰야의 작품은 한국에서도 수 차례 전시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 다나카 다쓰야의 개인전 포스터  
▶ 다나카 다쓰야의 2024년 5월 9일 사회 관계망 서비스 게시물

### 표현 활동 더하기 미니어처 세계 표현하기

- ▶ 준비물: 색점토, 조소 용구, 자유 재료, 사진기
- ▶ 제작 과정
- ① 미니어처 세계를 표현하고 싶은 배경이나 관련한 사물을 정한다.
- ② 활동지에 원하는 미니어처의 모습을 스케치한다.
- ③ 클레이 점토와 원하는 재료를 이용하여 미니어처를 제작한다.
- ④ 완성된 작품 배경이나 사물과 어우러지게 배치하여 사진을 촬영한다.
- ⑤ 사진을 인터넷 플랫폼에 게시하고 친구들과 감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작가를 소개합니다 | 마르셀 뒤샹과 다다

미술의 역사에서 가장 창의적인 작가를 꼽으라면 누구를 고를 수 있을까? 여러 이름들 중 마르셀 뒤샹은 절대 빠지지 않는 인물일 것이다. 전통적인 미술의 규범을 근본부터 뒤흔든 뒤샹의 '레디메이드(ready-made)' 개념은 그 당시에도, 그리고 그의 첫 레디메이드 작품으로부터 100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혁명적이다. 뒤샹은 미술계에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철학적인 질문들을 던졌다. 우리는 무엇을 미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무엇이 미술가가 하는 일인가? 이는 미술의 창조와 해석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이다. 뒤샹은 전통적인 미술의 매체 관념을 뒤엎고 대량 생산된 상품에 이름을 붙여 전시했다. 이렇게 미리(ready) 제작(made)된 사물을 발견하고 선택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예술가의 역할이라고 본 것이다. 뒤샹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촉발된 미술 운동인 '다다이즘(dadaism)'을 이끌기도 하였다. 이는 전후 사회와 자본주의, 정치, 문화 등에 대한 비판을 담아 논리와 원칙에 대한 거부, 급진적인 미술 형식, 풍자, 무의미한 내용의 미술 등으로 표현되었다.



▲ 자전거 바퀴 (자전거 바퀴, 의자 /129.5×64×31.5cm/1913년) 이 작품은 최초의 레디메이드로 알려져 있다.

1 레빈, 샘: 마르셀 뒤샹 이후

레빈은 20세기 미술 작품들을 전유하여 다시 제작한 미술 작품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개념 미술가이다. 레빈은 유명 미술 작품을 유사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다시 제작하며 독창성과 저자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 작품은 마르셀 뒤샹의 <샘>을 토대로 한 오마주로 <샘>과 같은 디자인의 남성 변기를 다른 재료로 제작하여 혁신적인 뒤샹의 아이디어에 대한 경의를 포함과 동시에 미술 작품의 고유성, 특정 미술 작품을 명작으로 인정하는 문화적 영향을 두고 의문을 제기한다.

2 페노네, 문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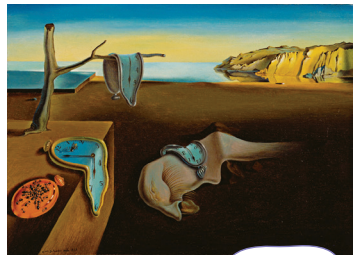
페노네는 인간과 자연의 연결에 관심을 갖고 나무를 이용한 작품을 지속적으로 제작하였다. 페노네는 특히 나무의 구조를 좋아하여 나무를 '완벽한 조각'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문 나무'는 통나무의 내부를 파내고 일부를 남겨 나무 모양으로 조각한 독특한 작품이다. 남겨진 나무 모양 조각의 중심은 나이테의 가장 내부, 즉 나무의 가장 어린 부분이기도 하다. 페노네는 이와 같이 나무의 뼈대를 남김으로써 물질의 정수와 숨겨진 생명의 힘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표현 활동 더하기

- 하나의 소재로 다양한 작품 계획하기
- 우리 학급의 생명 나무 만들기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는 아이디어

익숙한 대상에서 변형하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다. 주변 환경에서 친숙한 소재를 찾고 이를 작품으로 발전시켜 보자.



1 뒤샹과 '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미술이 되었다

변기는 어떻게 미술 작품이 되었을까? 1917년, 한 남자가 상점에서 남성 소변기를 구입하여 서명하고 미술관에 전시하였다. 이 남자가 뒤샹이다. 그는 작가가 직접 조각하거나 그린 것이 아니어도 그것이 미술이라고 불린다면 작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샘'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변기는 현대 미술을 상징하는 대표 작품이 되었고, 이 작품에 기반하여 재미있는 패러디 작품들이 제작되었다. '샘'은 미술에서 기존 관념을 뒤집는 새로운 발상이 미술계 전체에 얼마나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 뒤샹(Duchamp, Marcel) 프랑스-미국(1887-1968) 샘(레디메이드) 높이 63cm/1917년 현재/1964년 재제작 미술은 그리고 만들어야 한다는 통념을 깨산하여 상용으로 판매되는 가성품을 미술 작품으로 제시하였다.

▲ 콜버트(Covert, Philip) 영국(1979-) ▶ 샴스터 샘 (당양해그래는 화관) 높이 50cm/2001년 샘을 샴스터의 함께 재제작해 복제할 원 안트 작품 3D 영상이 NFT 작품으로 다시 제작하였다.

●지식 참고 | 예술가와 뮤즈

예술가들은 여러 대상에서 영감을 받아 작품을 제작한다. 때로는 한 명의 인물에게서 미술 작품을 제작하는 데 영감을 받기도 한다. 달리와 샤갈은 한 명의 여인, 자신의 부인에게서 평생의 영감을 받을 수 있었다.

[살바도르 달리와 갈라 달리]

달리가 53년 동안 순정을 바친 아내 갈라 달리는 그의 뮤즈이자 부인 또는 매니저이기도 했다.



▲ 살바도르 달리와 갈라 달리

▲ 6개의 실제 거울에 일시적으로 반영된 6개의 가상 각막에 의해 불멸화된 갈라의 뒷모습을 그리는 달리의 뒷모습(캔버스에 유채/60.5×60.5cm/1972-1973년)

○의미를 담아 표현하기



▲ 클림트(Klimt, Gustav) 오스트리아(1862-1918) 생명의 나무(캔버스에 유채/702×195cm/1905년)

하나의 대상, 다른 표현

같은 대상도 제작자의 관점과 발상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하나의 소재가 다르게 사용되거나 다양하게 표현된 작품들을 살펴보자.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 박수근(한국/1914-1965) 나무와 두 여인(해드보드 위 합제 유채/27×19.5cm/1950년대 중반)

○대조하여 표현하기



▲ 김범범(한국/1977-) 엘라베 이타(엘라베이타, 주목, 풀/가변 크기/2003년)

○재료로 사용하기



▲ 페노네(Penone, Giuseppe) 이몰리(1947-) 문 나무(산나무/316×105×105cm/2012년)



▲ 몬드리안(Mondrian, Piet Cornelis) 달관도(1872-1944) 구성 II (캔버스에 유채/88×115cm/1933년)

표현 활동 일상적인 사물을 새롭게 바라보기

표현 재료 일상적인 물건, 집합 재료(종, 목공용 접착제, 글루건 등), 색 재료(유성 마직, 아크릴 물감 등)

- 일상에서 사용하는 사물 가운데 다른 대상으로 새롭게 재해석할 수 있는 물건을 고른다.
- 재해석할 대상의 외관이나 용도를 잘 보여 줄 수 있도록 선택한 사물을 본래의 뒤 재조립하거나 채색하여 완성한다.
- 친구들은 같은 주제를 어떤 아이디어로 발전시켰는지 비교해 보고, 비슷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다면 그 이유를 이야기한다. 참신한 아이디어라면 왜 그것이 참신한 것으로 인정받는지 토의한다.



▲ 허병희(학생 작품) 푸른 고래 (페트병, 디스펜서에 아크릴 채색/6.5×9.5×1.7cm)



▲ 강예희(학생 작품) bowling 볼(메이킹구에 아크릴 채색/13×8×8cm)

다들 점검하기

- 미술에서 발상의 가치를 이해하고 열린 태도로 아이디어를 탐색할 수 있는가?
- 아이디어와 주제를 발전시켜 표현을 이어지는 과정을 적절히 계획할 수 있는가?

창의성의 필수 요소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 에드윈 린드 -

[마크 샤갈과 벨라 샤갈]

샤갈의 그림 대부분에 등장하는 여성은 그의 아내이자 뮤즈였던 벨라 샤갈이다. 첫눈에 반한 두 사람은 금세 부부가 되었으며 벨라는 1944년 전염병으로 갑자기 사망하기 전까지 샤갈의 유일한 뮤즈로 영감의 원천이었다.



▲ 마크 샤갈과 벨라 샤갈

▲ 에펠탑의 신랑 신부(린넨에 유채/150×136.5cm/1938-1939년) 샤갈과 벨라 부부가 파리로 이사한 후 그린 작품이다. 파리와 러시아의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 파리시 영의 삶, 거주지의 변화 때문에 생긴 두 문화의 공존, 신혼의 설렘을 잘 보여 준다.

표현 활동 일상적인 사물을 새롭게 바라보기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상 사물을 이용하여 기발한 발상을 적용한 작품을 제작한다.

여러 발상 방법을 활용하여 기존의 사물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활동으로 열린 마음으로 미술 작품을 제작해 본다.

활동지, 필기도구, 아크릴 물감, 접착제, 색종이, 철사 등

- 표현 과정
- ① 일상생활에서 소재 찾기
    - 평소에 지나쳤던 일상 사물들을 자세히 관찰한다.
  - ② 새로운 발상의 소재가 될 사물 준비하기
    - 대상으로 삼은 사물을 정한 후 실제 사물을 준비한다.
  - ③ 선택한 사물을 이용한 새로운 발상 계획하기
    - 선택한 사물을 재해석하는 이미지를 스케치한다.
    - 사물 자체의 모양이나 특징을 이용하는 방법, 여러 사물을 합쳐 새로운 모양을 만드는 방법, 사물을 분해하는 방법 등 다양한 제작 방법을 생각해 본다.
  - ④ 사물을 변형하거나 외관을 채색하여 작품 완성하기

- 지도상의 유의점
- 학생마다 다른 재료를 사용하므로 교사가 각종 도구의 사용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 날카로운 도구, 전기를 이용하는 도구를 사용할 때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한다.

평가 내용	평가 수준
일상 생활에서 발상의 소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선택한 사물의 용도와 모양을 재치 있게 이용하여 아이디어를 발상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표현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여 의도한 바를 정교하게 표현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자신의 발상 과정과 작업 결과물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표현 활동을 자기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표현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자기 주도적으로 해결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평가 방법	포트폴리오, 실기법, 관찰법, 체크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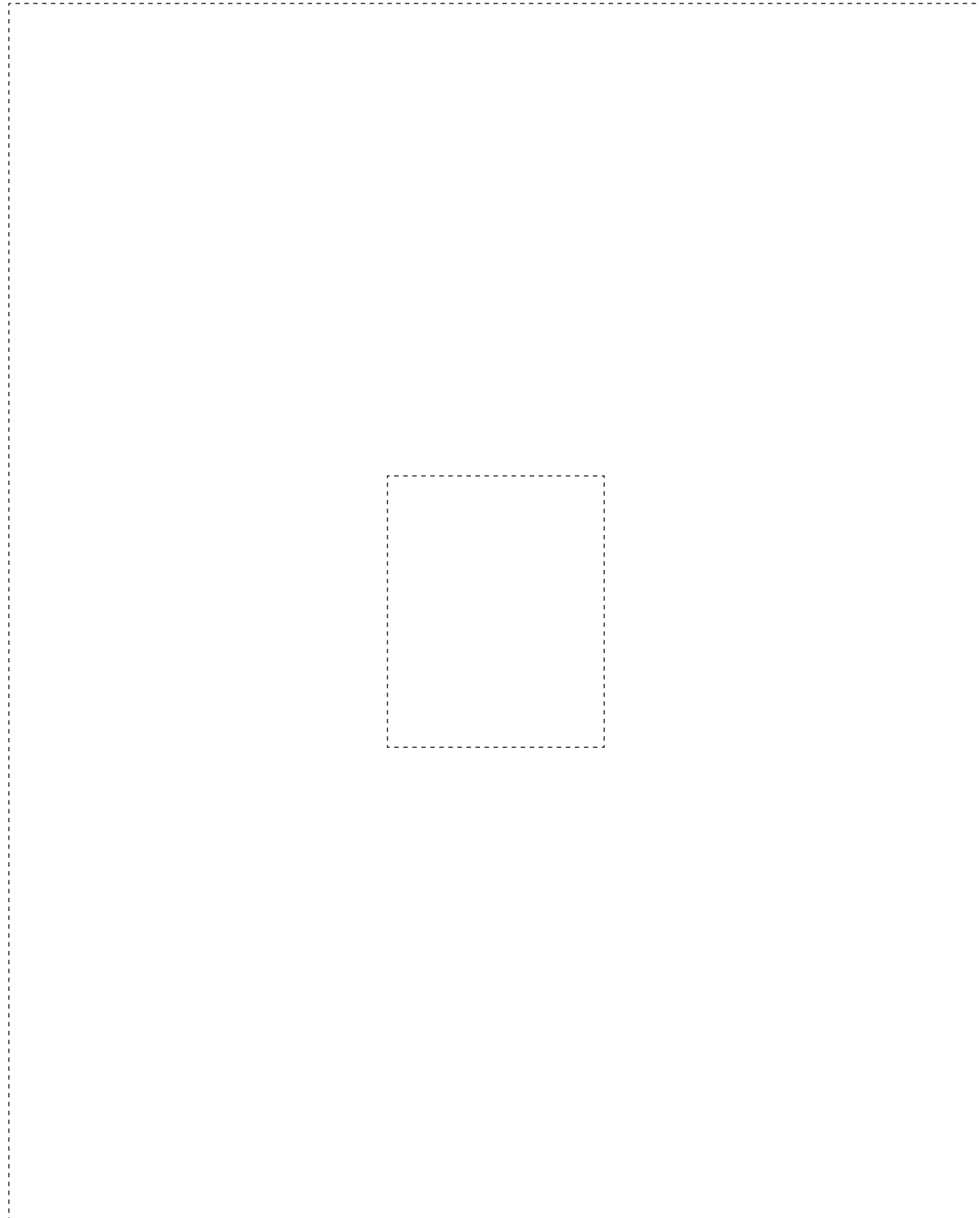
단원 자기 평가		
평가 요소	평가 내용	평가 수준
학습 내용 이해	미술 작품에 나타난 다양한 아이디어와 발상을 탐색하고 발상 전략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표현 활동	다양한 발상 방법을 이용하여 작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학습 태도	작품 제작 과정 전반에 책임감을 갖고 주체적으로 임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유의 사항] 단편적인 인상에 의존하기보다는 발상 과정과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뷰파인더로 익숙한 대상 새롭게 관찰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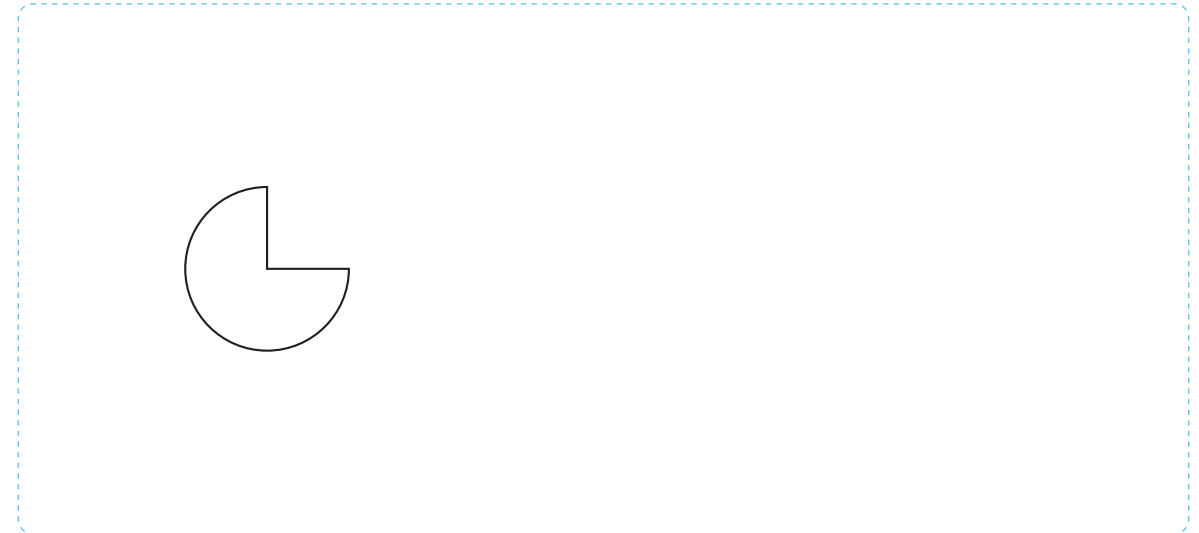
뷰파인더(viewfinder)는 카메라에 부착된 별도의 작은 화면으로, 사진사는 이를 사진의 초점을 맞추고 화면 구성을 하기 위해 이용한다. 이 활동지는 뷰파인더와 같이 작은 화면으로 시야를 한정하여 관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관찰하거나 화면을 구성하는 용도로 이용해 보자.

- **사용 방법:** 점선 부분을 자르고 작은 구멍 부분으로 주변을 관찰하거나 관찰한 풍경을 사진으로 촬영한다.



발상 과정 연습하기: 자유로운 발상

제시된 도형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연상하고 확장하여 표현해 보자.



발상 과정 연습하기: 의도 있는 발상, 스텀퍼(SCAMPER)

스텀퍼는 브레인스토밍 발상 기법 중 하나로, 아이디어 발상의 7가지 종류를 제시하고 이에 맞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기법이다. 스텀퍼 기법의 각 항목을 활용하여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발상해 보자.

항목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	이미지로 표현해 보기
<b>대체하기(Substitute)</b> 무엇을 대신 사용할 수 있을까? A대신 B를 쓰면 어떨까?		
<b>결합하기(Combine)</b> 무엇을 결합할 수 있을까? A와 B를 결합하면 어떨까?		
<b>변경하기/응용하기(Adjust/Adapt)</b> 조건이나 목적에 맞게 변경할 수 있을까? A를 B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C에도 쓰면 어떨까?		
<b>변형, 확대, 축소하기(Modify, Magnify, Minify)</b> 색, 모양, 형태 등을 바꿀 수 있을까? 첨가하거나 키우거나 줄일 수 있을까? A에서 a를 변화시키면 어떨까?		
<b>용도 바꾸기(Put to Other Uses)</b>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까?		
<b>제거하기(Eliminate)</b> 삭제, 제거, 축소할 수 있을까? A의 구성 요소 a, b, c 중 무엇인가를 빼면 어떨까?		
<b>뒤집기/재배치하기(Reverse/Rearrange)</b> 형식이나 모양을 새롭게 바꿀 수 있을까? AB를 BA로 바꾸면 어떨까?		